무안군, '군민 행복 증진' 일자리 정책 실시

기업·청년·구직자 대상 35개 일자리 사업

"무안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구직활동 지원"

무안군은 2021년 새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35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협의체를 통한 정책발굴, 청년네트워크 행사, 창업지원금 확대, 면접의상대여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청년 창업·창직 지원, 고용우수기업 근로복지환경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제공 등 각종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전라남도 일자리 평가 우수시군, 전라남도 인구유입 기업분야 최우수상,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수상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창업한 사업장 중 와니엘, 단물가게, 유라이크는 인스타그램 홍보로 총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창업 지원금 지원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와니엘은 야구용품 및 스크린야구 분석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 현재 전국 20개 체인점과 계약하여 이중 6개 체인점이 영업 중이며, 청년 4명을 고용하는 등 창업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단물가게는 단호박우유, 딸기 수제청 등을 판매하는 카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문 배달사업으로 전환 후 월 800여명 수준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다.

유라이크는 쌀을 이용한 이벤트 케익과 떡 등을 직접 제조하여 배달하는 업체로 주문량이 많아 휴일 없이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1인 미디어 창작실.

무안고용복지센터.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관내 목포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교 목포캠퍼스에 4차산업 융복합 교육장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1인 미디어창작실을 구축하여 70명을 대상으로 유튜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플랫폼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용축하금 지원, 고용우수기업 복지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등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최근 개소한 무안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한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비대면 시대 맞춰 올해 첫 시행…年 1회 수수료 100% 지원

목포시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처음 시행한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은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투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연 1회에 한해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10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 비용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사전 신청해 승인받고, 전자투표 관리업체를 선정·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가 널리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지원액 1억1백만원 규모 전액 군비…내일부터 접수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억1백만원 규모로 전액 군비이며, 1월 15일부터 접수를 받아 2월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 대상자는 10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택시업계에 지난 2020. 5월 1차로 지원금(56백만원)과 방역용품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군 교통행정팀(☎470-2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2021년 주요부서 업무보고회'

"신성장 동력사업 강력추진 등 핵심적인 사업 중심"

신안군은 오는 15일까지 신설 및 변경된 실·과·소·단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주요 군정 성과를 토대로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할 핵심적인 시책 중심으로 보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책과 핵심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안군의 핵심사업으로는 △신성장 동력사업(8.2GW 해상풍력, 1.8GW태양광, 주민 이익공유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방문간호사 확충, 신안군 행복복지타운 건립) △역사문화관광 등 인프라 확충 관광객 500만 시대 견인(1島1뮤지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음식 개발 △연도교 사업 지속 추진(비금~추포, 압해~화원, 신의~장산) △아열대 작물사업(망고,바나나,커피) △개체굴사업 △어선임대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이다.

신설·변경 실·과·소·단 중심
코로나19이후 시책·핵심사업
사전점검 통해 선제적 대응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신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살려 혁신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2021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2차 접수

영광군은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21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2차 접수를 2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33종 125개소에 대해서 2021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차로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조기발주가 필요한 10종 30개소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2차로 보급하는 사업은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생산판매 지원,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재배단지 조성, 지구 온난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 조성 등 5개분야 23종 95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이 있다.

사업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광군으로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각 시범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신기술 수용의지 등이 높아야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각종 시범사업이 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경영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생활체육 활성화 인프라 확충

무안군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축구장과 풋살구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비 11억 원(국비)을 투입하여 군 유지인 (구)무안고등학교 운동장에 유소년축구장을 조성하고, 무안읍 황토클리닉과 남악신도시 환경클린센터 부지 내에 야간조명이 설치된 풋살구장을 건립한다. 유소년축구장과 황토클리닉 내 풋살구장은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이며, 남악신도시 풋살구장은 환경클린센터 사업일정에 맞추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내 유소년축구단과 축구동호인들은 무안스포츠파크 내 축구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구장과 풋살구장이 완공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